

# 국세수입·연기금 수익 증가... 나라살림 적자 6년만에 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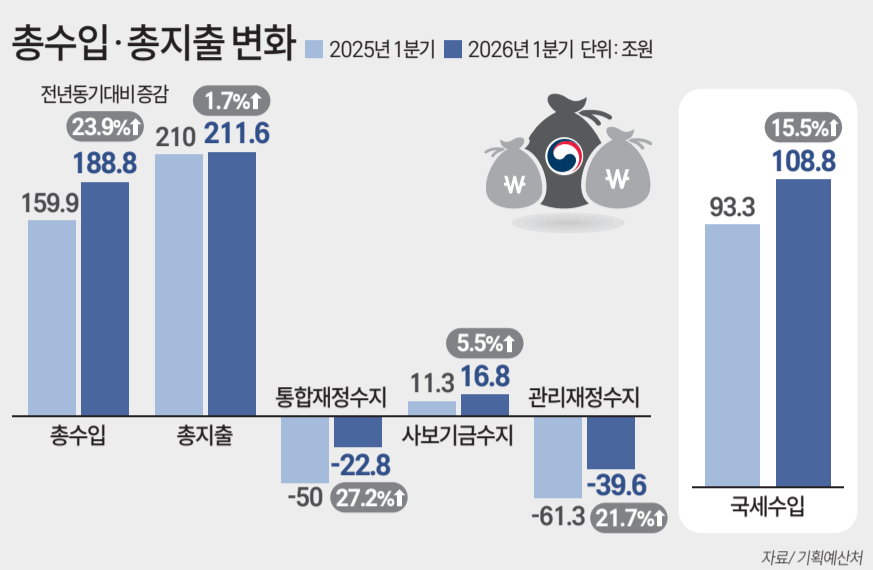
## 기획예산처 월간재정 동향

3월말 기준 총수입 188.8조  
소득세·증권거래세 등 증가  
관리재정수지 적자 21.7조 감소

국가 재정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증권거래세 수입을 비롯해 연기금 투자수익 등이 불어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1분기 기준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6년 사이 가장 적은 수준까지 내려왔다.

기획예산처가 14일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188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와 비교하면 28조9000억 원 늘어났다.

국세수입이 108조8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5000억 원 증가했다. 또 성



과상여금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확대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 영향으로 소득세가 4조7000억 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도 환급 감소 및 수입액 증가 영향으로 4조5000억 원 늘었다. 아울러 증권거래세가 주식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2조 원 증가를 기록했다.

세외수입은 17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8000억 원 증가했고, 기금수입은 62조8000억 원으로 7조5000억 원 증가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총수입의 주된 증가 요인은 늘어난 국세수입, 소득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라며 "국민연금의 투자수익 증가에 힘입어 기금수입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1~3월) 총지출은 211조6000억 원으로 1조7000억 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2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분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9조6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전년동기(-61조3000억 원)이 비해 21조7000억 원 개선된 수준이다. 적자 규모는 3월 기준으로 2020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이 관계자는 "수지를 처음 산출한 2012년 이후로 보면 역대 9번째 수준"이라고 전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3월 말 기준 1303조5000억 원으로 전월대비 9조 원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국고채 잔액과 외평채 잔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35조4000억 원 늘었다.

국채시장 금리는 중동 사태에 따른 인플레이 우려 및 1분기 경제성장률(+1.7%) 호조에 따른 통화정책 기대 변화에 따라 오름세를 보였다. 4월 말 기준 3년물 국고채 금리는 3.595%, 10년물은 3.923%를 기록했다. 국고채 발행 규모는 22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4월 누계 발행량이 84조1000억 원에 달하며 연간 총 발행한도의 35% 이상을 소화했다.

또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은 4월 말 기준 312조8000억 원으로 전달보다 8조8000억 원 늘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 대한민국 수소경제의 중심 포항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수소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 포항 수소산업의 미래

### 수소경제 선도도시 실현

### 주요 정책

- 수소특화단지 조성
- 수소도시 인프라 조성
- 수소모빌리티 인프라 조성
- 에너지 벤처 펀드 운영

## “정부·한은 공조 통해 금리충격 흡수해야”

>> 1면 '美 국채 지옥문...서 계속

### ◆금융불안 기폭제 될 수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 여파가 다른 나라 금리도 끌어올리면서 전체적인 글로벌 채권 투자의 수익률도 하락했다. 지난 13일 영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 0.57%를 기록했다. 전날에는 장중 연 5.13%까지 올랐다. 2008년 6월 30일(연 5.13%) 이후 약 17년 만에 최고치다.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와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도 각각 연 2.59%, 연 3.10%를 기록했다.

글로벌 국채 금리는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네이션와이드의 벤 에이어스 이코노미스트는 “투입 가격의 급등은 5월 소비자물가의 추가 상승을 예고한다”면서 “차기 연준 의장인 케빈 워시는 장기적으로 금리 인하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지만,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맴보들은 장기간 금리 동결을 옹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국발 ‘고금리의 습격’은 가계 및 기업부채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국내 경제에 특히 부담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개 국내 은행의 지난해 말 원화대출금 잔액은 2479조7879억원이다. 이 중 주택대 잔액이 771조9650억원으로 31.1%를 차지했다. 이어 중소기업대

출(26.6%), 개인사업자대출(18.5%), 대기업대출(12.7%), 신용대출(9.6%) 순이었다. 가파르게 뛰고 있는 국내 금리가 불안한 이유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인 하 가능성이 희미해지면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4%대(14일 기준 연 4.085%)에 올라섰다.

경기 회복 속도마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개인과 기업에 적잖은 부담을 줄 수 있다.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쏠릴 경우 외국인 자금 이탈과 환율 급등이 국내 금융 불안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실제 외국인은 최근 6일 동안 유가증권 시장에서 26조원 규모의 주식을 팔아치웠다. 덕분에 코스피는 하루에 수백 포인트를 오르내리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재정을 책임진 정부와 통화를 주관하는 한국은행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미국발 금리 충격을 흡수할 정책 조항을 찾아내 실업률 완화를 견딜 힘 지대를 벗어나는 수밖에 없다”면서 “한미 통화스와프 재체결을 통해 외환방파제도 더 높이 쌓아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스톡 베네트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한미 간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청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전국 14곳 국회의원 재보선... 여야 잠룡 참전

>> 1면 '내란세력 척결'서 계속

후보자들은 선거운동 기간에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나 연설과 대담, 선거공보물 발송, 선거 벽보와 현수막 게시 등을 할 수 있다. 광역시장과 도지사 후보들의 경우 신문·방송 광고도 가능하다.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이달 28일부터 금지된다.

사전투표는 오는 29~30일 이틀간 진

행된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다.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전국 14곳에서 미니 총선급으로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선에는 여야의 잠룡까지 포스트 선거정국의 주도권까지 바라보며 참전한 상태다. 이 가운데 13곳은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였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사수를, 국민의힘은 추가 의석 확보를 목표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서예진 기자 syj@